■ 민족문화연구 제112호(2026.0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095-136.
http://doi.org/10.17948/kcs.2026..112.095

고고학과 미술사를 통해 본 천불천탑의 공간, 화순 운주사의 건립 세력*

정성권(丁晟權)**

목 차

1. 머리말
2. 운주사의 조성 시기
3. 석불과 석탑의 양식적 특징
4. 운주사의 건립 세력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화순 운주사의 실질적인 건립 주체와 문화적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문헌 기록과 석조 미술의 양식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문헌 분석을 통해 기존의 도선 및 혜명 창건설이 17세기경 재해석된 것일 뿐, 실제 창건과는 관련이 없음을 논증하였다. 이어 운주사 석조물의 양식을 검토한 결과, 다탑 건립 방식과 원형다층석탑의 10각 기단, 탑신부의 기하무늬가 遼대 팔탑자탑 및 가옥형목곽 문양과 매우 흡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석조불감과 원형다층석탑은 중국 양두산 석굴 5호굴의 도상과 연관되며, 평평한 얼굴의 석불 양식은 돌궐계 석인상의 영향이 투영된 제주도 돌하르방의 사례와 상통함을 밝혔다. 아울러 낮은 대좌와 와불 등의 삼각형 결가부좌 표현 역시 요대 불상의 핵심적 요소임을 규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운주사는 1125년 요

* 본고는 2024년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화순군청에서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초빙교수.

제국 멸망을 전후하여 고려로 유입된 거란 유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조성한 불교 유적임을 논증하였다. 이는 운주사가 고려와 요 제국, 그리고 돌궐의 유목문화와 정착문화가 중층적으로 융합된 국제적이고 독보적인 역사적 산물임을 증명한다.

주제어: 화순 운주사, 거란, 遼, 천불천탑, 고려시대, 석조미술, 돌궐 석인상

1. 머리말

화순 운주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석불과 석탑으로 대표되는 운주사의 석조미술은 다른 지역의 석조미술과 다르게 미술사학이나 역사학뿐만 아니라 국문학, 민속학, 기호학, 천문학, 보존과학 등에서도 많은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1] 운주사의 학술적 성격은 1984년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하면서부터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발굴조사 성과를 통해 운주사의 대략적인 건립 시기와 중창 시기, 폐사 시기 등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운주사의 수많은 석불과 석탑을 누가 무엇 때문에 건립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운주사는 대략적으로 11세기경부터 조성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근래에 나온 연구 성과는 운주사가 궁예 세력에 의해 건립되었다는 의견부터 14세기 백련사 스님들에 의해 조성되었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2] 운주사의 조성 시기에 대해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이유는 고고학 발굴성과에 대한 검토와 함께 운주사 석불·석탑군에 대한 국제 비교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기존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운주사의 조성 시기와 건립 주체를 밝히고자 한다.

---

1) 운주사 연구 업적은 全南大學校 博物館, 「운주사 관련자료 총목록」, 『운주사 자료집성』, 2009, 529-543면 참조. 2009년 이후 출간된 연구업적은 본문의 각주에서 소개하였다.

2) 이재범, 「궁예정권의 국호·연조 제정의 종교·사상적 배경과 운주사」, 『신라사학보』 61, 신라사학회, 2024, 167-180면; 홍석경, 「관경십육관변상도에 의한 운주사 천불천탑의 새로운 해석」, 『전통미술융합연구』4, 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 2025, 103-105면.

운주사의 조성 시기에 대해서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고 운주사와 관련된 문헌기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운주사 석불과 석탑의 양식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운주사의 석불과 석탑은 전통적인 석조미술사의 범주를 벗어나는 독특하고 파격적인 양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석불과 석탑의 양식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운주사 석불과 석탑의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운주사 석불과 석탑의 분석은 비교할 수 있는 사례를 국내와 국외에서 찾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운주사의 조성 시기와 건립 세력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다.

2. 운주사의 조성 시기

1) 발굴조사를 통해 본 조성 시기

운주사의 조성 시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발굴조사 성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운주사 발굴조사는 전남대학교 박물관에 의해서 1984년, 1987년, 1989년에 걸쳐 4차례 실시되었다.[3] 운주사 발굴조사에서는 운주사 입구에 해당하는 용강리 지구에서 8동의 건물지와 4개의 기단이 확인되었다. 현재 운주사 사찰 건물이 들어서 있는 대초리 지구에서는 3동의 건물지와 2단의 석축이 조사되었다. 운주사에 처음 건물이 들어서고 정유재란 이전까지 운영된 곳은 용강리 지구이다. 4차례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운주사는 11세기 초반에 창건되어 12세기 말에 이르러 가람의 규모가 완비되는 전성기를 거치며, 총 네 차례의 중창을 거듭한 사찰이다. 운주사의 1차 중창기는 11세기 말-12세기

3) 1차 발굴조사는 1984년 5월-6월에 실시되었으며 보고서는 1984년 11월에 간행되었다(全南大學校 博物館, 『雲住寺』, 1984). 2차 발굴조사는 1987년 9월-11월에 실시되었으며 보고서는 1988년에 간행되었다(全南大學校 博物館, 『雲住寺Ⅱ』, 1988). 3차 발굴조사는 1989년 2월-3월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보고서는 1990년 간행되었다(全南大學校 博物館, 『운주사Ⅲ』, 1990). 4차 발굴조사는 1989년 9월-11월에 진행되었으며 보고서는 1994년 발간되었다(전남대 박물관 『운주사Ⅳ』,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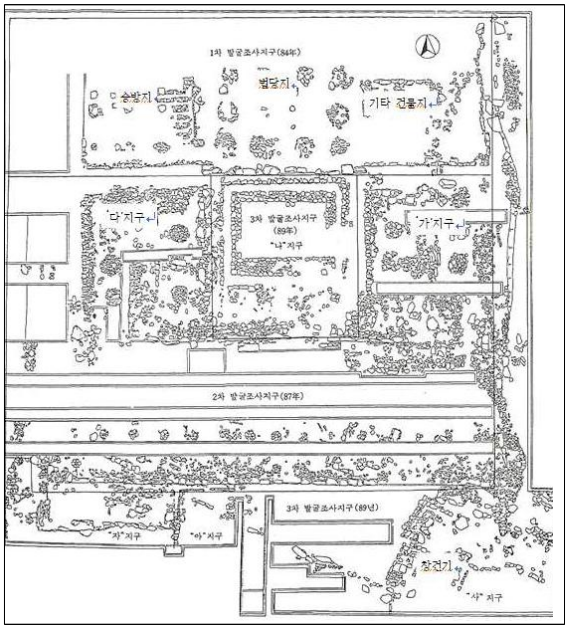
초반이며 2차 중창기는 12세기, 3차 중창기는 12세기 말부터 13세기 초반으로 파악되었다. 4차 중창기는 '弘治八年銘' 명문기와가 출토된 1495년이다. 운주사는 1597년 정유재란으로 인해 폐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초리 지구의 유적은 17세기 이후 운영된 곳임이 발굴 조사 결과 밝혀졌다.[4]

용강리 지구 건물지는 운주사 구층석탑에서 서남쪽으로 약 200m 정도 떨어진 운주사 입구에 있다. 운주사는 11세기 초반 초창기 건물이 운주사 계곡의 주향과 평행인 남서 30도의 방향으로 건립되었다. 운주사 초창기 건물은 1-3차 조사에서 확인된 용강리 건물지 남동쪽 모서리 최하층에 있는 '사지구' 건물지이다. 용강리 건물지는 정남향인 반면 초창기 건물지는 남서 30도의 방향으로 건물의 주향이 다르다. 초창기 건물지는 보고서에서 정면 5칸, 측면 4칸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발굴 보고서의 도면을 통해 보면 측면 3칸 정면 3칸으로 여겨진다.[5]

초창기 건물지의 조성 시기는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유물 중 10세기 후반 작으로 추정되는 해무리굽 청자편을 통해 정해졌다. 이 청자편을 통해 운주사의 초창기 건물의 조성 시기는 늦어도 11세기 초반에는 지어졌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운주사의 초창기 건물은 11세기 말 이전에 화재로 소실되었다.[6] 운주사 초창기 건물이 조성되었을 당시에는 초창기 건물 북쪽의 운주사 계곡에 위치한 석탑과 석불은 건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현재 석조미술사 연구를 통해 볼 때 10세기-11세기 초반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 전남지역의 석불과 석탑의 양식적 특징을 운주사 석불 및 석탑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7]

---

4) 全南大學校 博物館, 『雲住寺 資料集成』, 2009, 169-173면.
5) 全南大學校 博物館, 『운주사Ⅲ』, 1990. 20면.
6) 全南大學校 博物館, 위의 책, 22면.
7) 전남지역의 대표적인 10세기 조성 석불과 석탑은 나주 철천리 석불입상, 해남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불, 영암 월출산 마애여래좌상 등과 같이 대형 불상이 대표적이다. 10세기대 석탑으로는 대흥사 북미륵암 앞 석탑 등이 있으며 11세기 초 석탑은 영암 성풍사지 오층석탑이 있다. 이 석탑에서 발견된 탑지를 통해 성풍사지 오층석탑은 1009년(목종 12) 조성된 탑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 운주사 용강리 건물지 평면도(『운주사Ⅲ』, 15면)

발굴조사를 통해 파악된 운주사의 시기별 변천 과정 중 운주사의 석탑과 석불의 조성 시기와 연관지을 수 있는 시기는 1차-3차 중창 시기인 11세기 말에서 13세기 초반의 시기로 상정할 수 있다. 4차에 걸친 운주사 발굴조사를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운주사는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초반경 사찰의 중심축이 남서 30도에서 정남향의 구도로 바뀌는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된다. 이후 12세기 말에 이루어진 3차의 중창기에 사찰의 규모가 완비되어 정유재란이 일어나는 16세기 말까지 지속적인 번창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8] 12세기 말에 사찰의 규모가 완비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2세기경에는 운주사의 주요 석탑과 석불 역시 대부분 조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차례 중건된 용강리 건물지는 법당과 승방 등을 갖춘 규모 있는 건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탑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탑지가 확인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사찰의 규모가 완비된 시점에 수많은 석탑과 석불이 운주사 계곡에 가득 들어서 있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발굴조사 분석의 결과를 참조하면 운주사 석탑과 석불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12세기경으로 파악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8) 全南大學校 博物館, 『운주사 자료집성』, 2009, 174-175면.

2) 문헌기록을 통한 조성 시기 검토

운주사와 관련된 기록은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명문기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조선시대 기록이다. 운주사 창건과 관련해서는 9세기 인물인 도선국사 창건설화가 있으며 10세기 주로 활동하였던 혜명 스님이 건립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구비전승 역시 역사적 사실을 은유와 상징적 의미로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후대에 등장한 이야기가 마치 창건 당시부터 전해져 오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어 역사적 사실 여부를 파악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운주사 건립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의 역사적 사실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구비전승이나 창건과 관련된 기록의 역사적 층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운주사 창건과 관련된 가장 대중적인 이야기는 도선과 관련되어 있으며 고려 초기의 승려 혜명이 운주사 천불천탑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현존하는 기록 중 운주사 창건과 관련된 인물로는 도선보다 혜명과 관련된 기록이 먼저 확인된다. 1656년 간행된 『동국여지지』에는 운주사의 건립을 혜명이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 사료 1. 운주사, 천불산 서쪽에 있다. 절은 오래전에 폐허가 되었다. 그 좌우 벼랑과 기슭에 크고 작은 석불과 석탑이 매우 많이 있어 이를 일러 천불천탑이라 한다. 또 석실이 하나 이는데 그 안에 두 석불이 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등지고 앉았다. 민간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절은 신라 때 조성된 것이라 한다. 혹 일컫기를 고려 승려 惠明이 수천명의 무리들을 이끌고 가 각각 명령해서 조성했다고도 한다.[9]

운주사의 석불과 석탑을 혜명이 조성하였다는 내용은 나주 불회사의 산내 암자였던 일봉암에 대한 기록인 「日封庵記」에도 언급되어 있다. 「일봉암기」는 1737년 작성되었으며 글의 내용에 운주사라는 사찰명은 등장하지 않으나 '運舟之谷'이라 표현하고 있어 도선국사의 '行舟論'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산 관촉사 석조보살입상을 조성한 혜명에 대한 기록은 1530년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

9) 『東國輿地志』, 번역은 全南大學校 博物館, 『운주사 자료집성』, 2009, 234면 참조.

람』과 1749년 건립된 「관촉사사적비」에 나타난다. 아래의 사료를 분석하면 운주사 조성을 논할 때 도선국사와 혜명이 등장하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사료 2. 동국으로 돌아와 산천의 기맥을 저울질하여 점치니, (중략) 비유하건대 회오리바람이 부는 큰 바다 가운데 돛 없는 외로운 배가 노를 잃어 의지할 곳이 없는 것과 같다. (중략) 국사께서 이에 혈맥에 침이나 뜸을 뜨는 법을 사용하여, 은진의 땅에 대인 석상을 세우고 운주의 골짜기(運舟之谷)에 천개의 불탑을 건설하시니 돛과 노가 있어서 능히 가볍게 흔들리는 배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서도 진정하여 편안하게 하였다고 이를 수 있다.[10]

사료 3. 반야산에 있다. 돌미륵이 있는데, 높이가 54척이나 된다. 세상에 전해오는 말에, 고려 光宗 때에 반야산 기슭에 큰 돌이 솟아 오른 것을 중 慧明이 쪼아서 불상을 이루었다 한다.[11]

사료 4. 968년(광종 19) 사제촌의 여자가 반야산 서북쪽 모퉁이에서 고사리를 채취하고 있는데, 홀연 동자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가보니 큰 돌이 땅 속에서 솟아나오고 있었다. 괴이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와 사위에게 말하니, 사위가 곧 현감에게 고하였다. 관에서는 조사와 함께 회의를 통하여 "이는 반드시 불상을 만들 징조다."라는 결론을 얻고 사신을 八路에 보내어 공사를 맡을 사람과 부처상을 만들 사람을 구하여 혜명이 천거되었다. 조정에서는 공장인 100여 명을 선발하여 968년(광종 19)에 일을 시작해서 무릇 37년이나 경과 한 1006년(목종 9)에 만들어졌으며, 불상의 몸에서 상서로운 기운이 서려 중국의 승려 지안이 이를 보고 쫓아와서 '광명이 동시에 서로 응한다'라고 하여 관촉사라 하였다.[12]

사료 5. 우리나라의 지형은 항해하는 배와 같으며 태백산, 금강산은 그 머리이고 월출산, 영주산은 그 꼬리이며, 부안의 변산은 그 키이고 영남의 지리산은 그 노이며, 綾州의 雲柱는 그 복부라고 여겼다. 배가 물에 뜨려면 배의 머리・꼬리와 등・배를 눌러 주는 물건이 있어야 하고, 그 나아가는 것을 제어하는 키와 노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연후에 가라앉거나 표류하는 위태로움을 면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사탑을 세워 진압하고 불상을 세워 눌러 놓았다. 특히 雲柱 아래는 지세가 굼틀거리듯 용감하게 일어나는 곳이라 별도로 천불천탑을 세워 그 등과 배를 채우게 하였다.[13]

---

10) 「日封庵記」, 번역은 全南大學校 博物館, 『운주사 자료집성』, 2009, 231면 참조.
11)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8 충청도 은진현 佛宇條.
12) 「灌燭寺事蹟碑」, 『朝鮮金石總覽』下, 亞細亞文化社, 1976, 1153면.

관촉사 석조보살입상을 조성한 혜명에 대한 기록 중 1530년 간행된 〈사료 3〉,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은 석불의 조성을 혜명이 했다는 간단한 내용만 전한다. 그런데 약 200여년 후인 〈사료 4〉, 1749년(영조 25) 「관촉사사적비」에서는 은진미륵이 조성되는 자세한 내용과 더불어 혜명의 주도하에 장인 100여 명이 선발되어 37년간이나 걸려 불상이 조성되었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1656년 간행된 『동국여지지』에는 운주사의 건립을 혜명이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1737년 작성된 「일봉암기」에도 운주사의 건립을 혜명이 주도한 것으로 나온다. 〈사료 5〉는 『도선국사실록』 중 운주사 관련 부분이며 운주사를 도선국사가 창건했다는 가장 이른 기록이다. 『도선국사실록』은 1675년경(숙종 초년) 초간되었으며 현재 1743년(영조 19) 중간된 것이 남아 있다. 『도선국사실록』은 대부분 믿기 어려운 기사로 채워져 있어서 사료로서의 가치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된다.[14]

운주사를 혜명이 창건했다는 기록인 『동국여지지』가 처음 등장하는 시기가 1656년경이며 『도선국사실록』 초간 되는 시기가 1675년경이다. 1656-1675년경 운주사 창건주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사료 1〉 『동국여지지』의 내용에 운주사가 신라 때 조성되었다는 민간의 전언이 나오고 있으나 도선은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다. 『도선국사실록』이 간행된 이후 만들어진 〈사료 2〉 「일봉암기」중 운주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도선국사의 '行舟論'이 확인되는 점을 보아 『도선국사실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동국여지지』와 『도선국사실록』이 17세기 중반, 비슷한 시기에 세상에 등장했다는 점은 운주사를 창건한 중요 인물로 도선국사와 혜명이 언급되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혜명과 도선국사는 17세기 중반경 '재해석'된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운주사 창건설화가 17세기 중반경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혜명과 관련된 내용만을 보더라도 1530년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혜명은 〈사료 3〉에서와 마찬가지로 불상의 제작

13) 「道詵國史實錄」, 번역은 全南大學校 博物館, 『운주사 자료집성』, 2009, 234면 참조.
14) 최병헌, 「도선의 생애와 풍수지리설」, 『선각도선국사의 신연구』, 영암군, 1988, 97-98면.

자로만 간단히 언급되었다. 17-18세기 사이 '재해석'된 혜명은 1749년 건립된 「관촉사사적비」에서 풍부한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다. 도선국사 역시 1675년 『도선국사실록』의 초간과 1743년의 중간을 통해 17-18세기 사이 도선국사의 '재해석'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운주사 창건과 관련된 주요 인물로 자리매김한다.

그러나 9세기 인물인 도선국사와 968년경부터 시작된 논산 관촉사 석조보살입상 조성의 책임자였던 10세기 인물인 혜명이 12세기경 건립된 운주사의 석탑과 석불의 건립자일 수 없다. 또한 '신양식' 불상으로도 분류되는 고려초의 거석불을 만든 혜명이 운주사를 조성했다는 점은 시기적으로뿐만 아니라 양식적으로도 부합되지 않는다. 운주사의 석불과 석탑을 도선국사나 혜명이 조성했다는 이야기는 17세기경에 附會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석불과 석탑의 양식적 특징

운주사의 석불과 석탑을 조성한 세력과 운주사 건립의 종교 사상적 배경을 밝히기 위해서는 결국 미술사적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모든 작품, 특히 석조미술의 경우 앞 시대 전통의 흔적이 마치 지문처럼 어떠한 형태로든 개별 작품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운주사의 석불과 석탑은 일반적인 중세 불교조각사나 석탑사의 전통과 연계시키면 '맥락'이 거의 없이 돌출되듯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운주사 건립 주체나 조성 배경 등에 대해 아직 뚜렷한 정설이 없다.

운주사의 수많은 석탑과 석불을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미술사적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 운주사를 누가 만들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운주사 건립 세력을 찾기 위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많은 수의 석탑을 한 공간에 집중적으로 건립한 사례가 있는가? 둘째. 운주사 석탑을 백제계 석탑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셋째.

운주사 석탑의 탑신석 및 옥개석 하단에 새겨진 다양한 문양은 전통에 기반한 것인가? 넷째. 원형탑 및 구형탑이 조성된 적이 있는가? 다섯째. 운주사 석감과 같은 가옥형 석실이 조성된 적이 있는가? 여섯째. 운주사 석불은 전통적인 양식의 계승과 영향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가? 일곱째. 운주사 석불의 상호와 같이 눈썹과 코가 T자형으로 표현되며 눈과 입이 거의 표현되지 않는 평평한 얼굴을 갖고 있는 석불이 존재하는가?

위에 언급한 질문은 운주사 석불과 석탑의 양식적 특징에 관한 질문이라 할 수 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개괄적인 답을 먼저 한다면 '없다'이다. 물론 세부적인 부분에서 운주사 석탑과 석불의 양식적 특징을 우리나라 석조미술에서 찾을 수는 있다. 그러나 초대형 와불과 석탑이 혼재되어 있는 100여 기 이상의 운주사 석불과 석탑이 전통과 크게 연계되지 않았다는 점은 운주사 석조미술의 주요한 양식적 특징이다. 앞서 제기한 일곱 개의 미술사적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찾아가 보면 운주사의 석탑과 석불을 누가 왜 조성했는지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한정된 공간의 多塔 건립 사례

먼저 첫 번째 질문인 한 공간에 많은 석탑이 조성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탑파는 익산 미륵사지에 목탑과 석탑이 섞인 3개의 탑이 건립된 것을 제외한다면 주로 쌍탑이 조성되는 것이 다탑 건립의 최대 수량이다. 사찰 경내 이외의 지역이나 산등성이 등에 건립된 비보탑의 경우도 주로 한 기의 탑이 건립되었다. 운주사 계곡의 한정된 공간에 많은 수의 탑이 집중적으로 건립된 사례는 우리나라 탑파 건립의 전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건탑 방법이다. 또한 석탑뿐만 아니라 석불 역시 한정된 공간에 많은 수의 석불 입상과 좌상이 함께 배치된 사례는 없다.[15]

15)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 산청 도전리 마애불상군, 남원 개령암지 마애불상군, 법주사 상고암 마애불상군 같이 마애불의 경우 다수의 불보살상 등을 하나의 바위에 조각한 사례는 있으나 개별적인 석불을 한정된 공간에 집중적으로 조성한 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수의 석불이 모인



〈그림 2〉 중국 소림사 탑림 (사진 필자)



〈그림 3〉 인도 산치 대탑이 위치한 구릉 원경(사진 필자)



〈그림 4〉 인도 산친 대탑에서 바라본 승원과 주변 구릉지역 (사진 필자)

한 장소에 수많은 탑이 산재해 있는 곳은 미얀마의 파간(pagan)을 비롯하여 중국의 塔林, 인도의 부다가야 대탑 주변의 봉헌용 소탑 등이 있다.[16] 미얀마 파간의 탑과 인도 부다가야의 탑은 넓은 평지 사원에 건립된 탑이며 하남 소림사 탑림과 같은 중국의 탑림은 불탑이라기 보다는 고승들이 사리를 봉안하는 부도의 성격을 띤다. 인도 산치 대탑의 경우 대탑 주변에 중소형 탑이 함께 있으며 산치탑이 건립된 지역은 완만한 능선의 정상 부근이다. 산치 대탑이 있는 지역은 구릉의 능선 정상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정상 부근은 대규모 승원이 들어설 만큼 넓은 면적이 확보되어 있다.

운주사와 같이 좁은 계곡에 다탑이 건립되 사례는 간다라 지역인 파키스탄 스와트(Swat)의 암룩다라(Amluk-dara) 탑과 나지그람(Najirgram) 탑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암룩다라 탑은 스와트 바리코트(Barikot) 지역에 있는 카라카 계곡(Karakar Valley)에 있으며 나지그람 탑은 바리코트 지역의 나지그람 계곡에 조성되었다. 암룩다라와 나지그람의 탑은 2세기경 건립된 불교사원으로서 부다가야의 탑과 같이 대형 불탑 주변에 다수의 봉헌탑이 건립되어 있다.

사례의 경우도 석조삼존불입상과 같이 세트를 이루는 3개의 석불이 조성된 경우는 있으나 운주사와 같이 독립된 석불이 다수 건립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찾을 수 없다.

16) 천득염, 「운주사석탑의 양식적 특성과 세계유산으로서의 의미」, 『호남문화연구』54, 호남학연구원, 2013, 275-276.



〈그림 5〉 파키스탄 간다라 지역 암룩다라 스투파 (Amluk-dara Stupa), (사진 필자)



〈그림 6〉 파키스탄 간다라 지역 암룩다라 스투파 (Amluk-dara Stupa), (사진 필자)



〈그림 7〉 파키스탄 간다라지역 나지그람 수투파 (Najirgram Stupa), (사진 필자)



〈그림 8〉 파키스탄 간다라지역 나지그람 수투파 (Najirgram Stupa), (사진 필자)



〈그림 9〉 중국 遼寧省 八塔山 팔탑자탑 (사진 필자)



〈그림 10〉 중국 遼寧省 八塔山 팔탑자탑(사진 오호석)

이밖에 우리나라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역에서 산지에 다수의 탑을 건립된 사례는 중국 遼寧省 義縣 八塔山에서 찾을 수 있다. 팔탑산 유적에는 8개의 산봉우리에 각각 형태가 다른 8개의 탑이 세워져 있다. 이 탑들의 창건연대는 요대로 알려져 있으며 청대에 중수되었다.[17] 일반적인 요대 탑은 평면 4각, 6각, 8각의 밀첨식 탑이 주요 지역에 1기씩 건립되는데 팔탑산의 요대 탑은 산 능선의 봉우리를 따라 8개의 탑이 배치되어 있다. 다양한 평면을 보이는 다수의 탑이 한 공간에 건립되었다는 점에서 요대 처음 조성된 팔탑산의 탑들은 운주사의 다탑 배치를 고찰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2) 운주사 석탑의 양식적 특징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은 운주사 석탑의 양식적 특징에 관한 질문이라 할 수 있다. 운주사를 백제계 석탑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와 운주사 석탑의 양식과 문양이 전통에 기반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운주사의 석탑은 현재 완전한 것만을 기준으로 하면 평면 방형이 12기, 원형이 2기로 14기가 남아 있다. 하지만 100여 개에 이르는 무너진 탑재들이 확인되고 있어 본래 30여 기 이상의 석탑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18] 운주사 석탑의 건립시기는 어느 특정한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고 장기간에 걸쳐 중창 시기마다 새로운 형태의 석탑들이 세워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19] 운주사 석탑은 백제계 석탑으로 분류되는데 운주사 석탑을 백제계 석탑으로 본 근거는 탑신의 구성에서 있어 별석으로 고준하게 구성한 점이나 옥개석의 평박광대한 감, 가벼운 반곡, 우아한 곡선미, 두툼한 우동 등에서 백제계탑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다.[20]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백제 석탑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만이 남아 있다. 백제계 석탑은 후삼국시대 이후 구 백제권역에 백

17) 주경미, 「遼代 八大靈塔 圖像의 硏究」, 『중앙아시아연구』14, 중앙아시아학회, 2009, 159-160면.
18) 全南大學校 博物館, 『운주사 자료집성』, 123면.
19) 천득염, 『백제계석탑 연구』, 전남대 출판부, 2000, 83면.
20) 천득염, 위의 책, 84면.

제 석탑의 영향을 받아 건립된 석탑을 일컫는 용어이다. 백제 석탑의 주요한 특징은 낮은 기단을 갖고 있다는 점, 평박한 옥개석, 넓은 옥개받침 등을 언급할 수 있다. 후삼국시대 이후 등장하는 백제계 석탑은 일반적으로 순수백제계석탑과 절충양식백제계석탑 등으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순수백제계 석탑은 부여 장하리 삼층석탑, 정읍 은선리 삼층석탑, 김제 귀신사 삼층석탑 등을 들 수 있다. 절충양식백제계 석탑은 담양 읍내리 오층석탑, 곡성 가곡리 오층석탑 등이 있다.



〈그림 11〉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진 국가유산청)



〈그림 12〉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사진 필자)



〈그림 13〉 운주사 구층석탑 (사진 필자)

이러한 분류 방법은 백제 석탑을 기준으로 후삼국시대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백제계석탑을 양식적 특성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며 학문적으로 매우 유용한 분류 체계이다. 하지만 운주사 석탑을 세장고준형의 백제계 석탑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백제계' 석탑이라 한다면 백제 석탑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나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의 양식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백제계 석탑에서는 간접적이나마 백제 석탑이 연상되어야 한다. 그런데 운주사 석탑에서 상대적으로 평박한 옥개석을 제외하면 백제 석탑을 연상하기는 쉽지 않다. 기단부 없이 지대석 위에 바로 건립된 운주사 석탑은 백제계 석탑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주변 백제계 석탑의 양식적 특징이 일부 반영된 '고준세장형 고려석탑'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운주사 석탑은 전체 고려시대 석탑의 양식 전개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파격적이며 특이한 석탑이다. 운주사 석탑의 중요한 특이성은 한정된 공간에 다탑이 건립되었다는 점, 지대석이나 자연 암반을 일부 가공하여 기단부를

생략한 채 탑신부와 상륜부만 건립한 점, 탑신에 다양한 문양이 조각되었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언급할 수 있다. 사찰의 주요 법당 앞이 아니라 자연 암반 위에 석탑을 건립한 사례는 우리나라의 여러 장소에서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경주 남산 늠비봉 오층석탑, 경주 남산 용장사 삼층석탑, 산청 법계사 삼층석탑, 영동 영국사 망탑봉 삼층석탑, 증평 남하리 삼층석탑, 제천 소악사지 삼층석탑, 인제 봉정암 오층석탑 등을 들 수 있다. 이 석탑 중 산청 법계사 삼층석탑과 인제 봉정암 오층석탑의 경우 기단부가 생략된 것처럼 보이나 법계사 삼층석탑은 별석의 낮은 삼단받침을 조성하여 기단부를 대체하고 있으며 봉정암 오층석탑은 바위 위로 한 단의 받침을 만들어 탑을 받치고 있다.

운주사 석탑에서도 지대석을 방형의 기단부처럼 만들거나 지대석 위로 낮은 다층 단을 만들어 기단부를 대체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암반을 일부 다듬거나 지대석만을 조성한 후 기단부 없이 바로 탑신부를 세웠다. 운주사 대부분의 석탑은 기단부를 생략한 채 고층의 탑을 조성한 것이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조성 수법으로 전통성에서 벗어난 건탑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4〉 탑신부 X자 문양(사진 필자)



〈그림 15〉 탑신부 수직 문양(사진 필자)



〈그림 16〉 탑신부 ◇, 화문(사진 필자)



〈그림 17〉 탑신부 수직 문양(사진 필자)



〈그림 18〉 파키스탄 스와트 박물관 소장 부조 불상 대좌 문양 (사진 필자)



〈그림 19〉 파키스탄 탁실라 박물관 다르마지카 스투파 (Dharmarajika Stupa) 장식용 석판(사진 필자)



〈그림 20〉 파키스탄 탁실라 박물관 다르마지카 스투파 (Dharmarajika Stupa) 장식용 불상 대좌(사진 필자)

운주사 석탑이 전통성에서 벗어난 석탑이라는 점은 석탑의 탑신부에 조각된 다양한 기하 문양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운주사 석탑 탑신부에는 마름모, 엑스자, 십자꽃무늬, 수직선 및 수직사절선 등이 새겨져 있다. 이러한 문양 형태는 우리나라의 다른 석탑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석탑 장식이다. 운주사 탑신부 문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마름모 도형의 변형으로 보아 이를 인도의 힌두교 사원에 장식된 금강석(다이아몬드) 문양과 연계해서 해석하는 의견도 있다.[21] 마름모 형태에 대한 또 다른 해석으로는 원시 사냥꾼들에게 삶의 원천이나 풍속, 안녕을 상징하는 표현이거나 친족관계에 의해 부각되는 성스러운 여성 표현으로 풀이하기도 한다.[22] 이밖에 석탑 장식문양을 『법화경』에 나온 칠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는 의견도 있다.[23] 운주사 탑신부에 새겨진 문양의 기원을 찾아간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의 힌두교 사원이나 멀리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불교문화의 범주 속에서 기원을 찾는다면 파키스탄 간다라 불교 조각 문양에서 보다 확실한 기원을 찾을 수 있다.[24] 간다라 지역의 불탑 형식은 중국과 한국으로 이

21) 황호균, 「운주사의 사찰 창건과 천불천탑의 조성 배경론」, 『불교문화연구』11, 남도불교문화연구회, 2009, 267면.
22) 선미라, 「문화기호학으로 풀어보는 운주사 천불 천탑의 문양들」, 『담론201』9-1, 한국사회역사학회, 2006, 113면.
23) 성춘경, 『和順 雲住寺石佛-石造佛龕을 中心으로-」, 『전남의 불상』, 학연문화사, 2006, 200-201면.
24) 오호석, 「운주사 석탑의 특징과 가치」,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세계유산적 가치(OUV) 규

어지는 동북아시아 지역 불탑 형식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25]

운주사 석탑의 기하 문양 기원은 간다라 불교조각에서 찾을 수 있다. 이밖에 최근의 연구성과는 운주사 석탑에서 확인되는 마름모꼴 문양과 교차선 문양인 엑스자 문양이 석굴 벽화의 테두리 장식용 문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된다. 동아시아 불교 문명권에서는 테두리를 장식하는 다양한 기하문양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마름모꼴과 교차선 문양이며 마름모꼴 무늬는 석굴 벽화의 테두리를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교차선 무늬는 부처의 금강대좌를 두르는 띠 장식문양으로 흔히 사용되었다고 한다. 구체적인 사례가 키질석굴 제17굴, 제118굴의 벽화이다. 이와 더불어 키질석굴 제123굴과 돈황석굴 벽화의 테두리 장식은 운주사 석불의 기하 문양과 판박이라 할 만큼 닮았다.[26]

운주사 석탑의 탑신부에 장식된 문양의 기원은 문양 패턴의 유사성으로 보았을 때 간다라와 실크로드 상의 불교 석굴사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검토해야 할 것은 운주사 석탑을 만든 사람들이다. 운주사 석탑과 석불에 대해서는 형식과 양식의 극도의 변형과 왜곡, 그리고 극단의 도식화와 추상화로 인하여 민예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며 이를 만든 사람들은 아마도 전혀 조각의 경험이 없는 山谷의 민간인들로 추정되기도 한다.[27] 즉, 전문적인 불교미술 장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장인 아닌 이들이 어떻게 간다라와 실크로드 상의 석굴사원에서 유행하였던 장식문양을 운주사 석탑에 적용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간다라 유적이나 실크로드 상의 석굴사원 내에 조성된 불교미술들은 대부분이 왕이나 귀족들의 후원이 뒷받침된 작품들이다. 이에 반해 운주사 석탑과 석불은 전통적인 전문 장인이 참여하여 조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운주사 석탑과 석불의 양식적 특성은 '파격성'으로 설명하기도 한다.[28] 이러한 파격

명을 위한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문화유산보존연구원, 2024, 43-46면.

25) 천득염・최정미・염승훈・김소영, 『인도 불탑의 형식과 전래양상』, 심미안, 2018, 313면.

26) 홍석경, 『운주사 천불천탑의 미학』, 문화의 힘, 2024, 132-139면.

27) 강우방, 「韓國毘慮遮那佛像의 成立과 展開-圓融의 圖像的 實現-」, 『미술자료』44, 국립중앙박물관, 1989, 61면.

28) 朴慶植, 「和順 雲住寺 石塔 特殊性에 관한 考察」, 『東洋學』57, 檀國大 東洋學硏究院, 2014, 143면.

성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운주사 석탑과 석불은 만든 사람들은 전통에 얽매이지 않았던 집단이며 전통적인 전문 장인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운주사 석탑을 만든 사람들이 장식 문양을 탑의 표면에 조각한 이유는 그들의 일상생활과 장식 문양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석탑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이며 목조건축물을 돌로 번안한 것이다. 목조건축물에 마름모꼴이나 수직선 등을 활용한 장식 문양을 부착한 사례를 찾는다면 운주사 석탑을 건립한 세력의 정체를 밝히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행히 마름모꼴, 수직선문과 같은 기하 문양을 요대 무덤에서 발견된 가옥형목곽에서 찾을 수 있어 주목된다.



〈그림 21〉 중국 興安博物館 소장 따이친따라 요대묘 출토 가옥형목곽(사진 필자)



〈그림 22〉 중국 興安博物館 소장 따이친따라 요대묘 출토 가옥형목곽(사진 필자)



〈그림 23〉 중국 興安博物館 소장 따이친따라 요대묘 출토 가옥형목곽 문장식(사진 필자)



〈그림 24〉 중국 興安博物館 소장 따이친따라 요대묘 출토 가옥형목곽 문장식(사진 필자)

기하 문양이 장식된 가옥형목곽은 내몽골 싱안맹(興安盟) 따이친따라(代钦塔拉) 3호묘에서 발굴된 것이 있다. 현재 이 가옥형목곽은 興安博物館에 전시되어 있다. 가옥형목곽이 출토된 3호묘는 요대 귀족의 무덤이며 十자 형태의 평면구조를 보인다. 무덤 남쪽(남동)에 입구가 있으며 입구의 반대편인 북쪽(북서)에 돔 형태의 지붕이 있는 墓室이 있다. 입구와 묘실 중간에는 동서 방향에 別室이 각 1개씩 있다.[29] 가옥형목곽은 묘실 내에 있었으며 크기는 높이 291cm, 길이 271cm, 폭 208cm이다.[30] 가옥형목곽은 팔작지붕을 한 목조건물이며 창문은 만들지 않았고 건물의 중앙에 두 개의 미닫이 문이 달려 있다. 건물 중앙에는 시신을 안치하는 시상대가 평상 형태로 마련되어 있다. 따이친따라 3호묘 가옥형목곽의 미닫이 문에는 마름모꼴, 원형, 방형, 수직문 등 다양한 장식이 확인되는데 운주사 석탑 탑신부의 문양과 유사한 점이 있다.

운주사 석탑의 탑신부는 목조건축물의 벽체와 문이 있는 부분이다. 석탑이 목조건축물의 번안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운주사 석탑의 기하학 장식 문양은 목조건축물의 벽과 문이 있는 장식과 동일한 자리이다. 요대 조성된 따이친따라 3호묘 무덤에서 확인된 목조건축물의 장식문양과 운주사 석탑 탑신부에 장식된 기하학 문양이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다는 점은 운주사 석탑과 석불을 조성한 세력이 어떠한 형태로든 요 문화와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원형다층탑과 구형탑

네 번째 질문은 운주사 원형다층석탑 및 구형다층석탑과 관련된 문제이다. 운주사 석탑의 양식적 특징 중에서 중요하게 검토할 부분은 운주사 원형다층석탑의 존재이다. 원형다층석탑은 운주사의 다른 석탑과 다르게 기단부가 존재한다. 원형다층석탑의 기단부는 대좌형 기단부로서 갑석은 평면 원형이며 갑석의 하단부에

29) 刘未,「辽代契丹墓葬研究」,『考古学报』4, 北京大学考古文博学院, 2009, 500-501면.
30) 가옥형목곽의 크기는 興安博物館에서 제작한 '辽代木质棺床小帐' 동영상 설명을 참조하였다(https://www.bilibili.com/video/BV1n54y1B79c/).

는 앙련이 시문되어있다. 갑석 하단의 기단부는 5매의 돌로 결합되어 있는데 결합된 각 돌은 중앙부가 돌출되어 있어 기단부의 평면은 10각을 이루고 있다.

운주사 원형다층석탑은 탑신부의 평면은 원형이지만 기단부 평면은 10각이다. 동아시아 탑파의 평면은 일반적으로 평면 4각과 8각이 주를 이루며 드물게 6각이 나타나기도 한다.[31] 탑파의 평면 구성이 10각으로 이루어진 탑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遼寧省 義縣 八塔山에 세워진 탑 중 1기의 탑이 10각의 평면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 평면 10각의 탑이 운주사와 요대 창건된 팔탑산에 있다는 점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운주사 원형다층석탑은 기단 갑석 하부가 10각이며 기단부의 하대석이 지대석을 겸하고 있다. 운주사 원형탑은 갑석 하부의 기단부만 빼면 전체 석탑은 평면 원형의 부재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석탑 부재에 평면이 원형인 부재가 포함된 석탑은 석굴암 삼층석탑과 도피안사 삼층석탑을 들 수 있다. 경주 석굴암 삼층석탑은 기단부가 평면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은 기단부가 팔각 대좌형이며 하대상석이 원형의 앙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석탑은 기단부가 원형이지만 탑신부는 평면 방형의 삼층석탑이다. 이에 반해 운주사 원형다층석탑은 탑신부가 전체 원형의 부재로 이루어져 있어 운주사 원형 다층석탑과 직접적인 양식의 영향 관계를 상정하기 어렵다.

운주사 원형다층석탑의 조형에 영향을 준 석탑을 우리나라에서 찾는다면 경주 남산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의 대좌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의 대좌는 불상이 앉아 있는 상대석 하부에 앙련 장식이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처음부터 대좌가 변형된 형태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외형적인 모습은 용장사곡 석불 대좌와 운주사 원형탑이 유사한 점은 있으나 조형 의도 자체는 전혀 다르다. 또한 용장사곡 석불 대좌와 같은 석조대좌가 이후 다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운주사 원형다층석탑의 직접적인 기원을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의 대좌에서 찾기는 어렵다. 운주사 원형다층석탑의 탑신은 탑신과 옥개석이 모두 원형으로 이루어졌

31) 오호석, 『요대 탑파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2023, 33-55면.

다. 용장사 석불대좌의 형태는 운주사 원형탑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탑이 아니라 대좌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운주사 원형다층석탑은 우리나라에서 탑신부가 원형으로 조성된 유일한 탑이다. 이와 함께 탑신부가 발우와 유사하게 생긴 원구형 탑신으로 이루어진 운주사 원구형 석탑 역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원구형 석탑이다.



〈그림 25〉 운주사 원형다층석탑 10각 기단부(3D)



〈그림 26〉 중국 팔탑산 10각 석탑(사진 오호석)



〈그림 27〉 중국 양두산 석굴 석탑(사진 필자)



〈그림 28〉 중국 양두산 석굴 5호굴 이불병좌상과 원형탑(사진 필자)



〈그림 29〉 운주사 석조불감과 원형탑 (사진 필자)

운주사 원구형 석탑과 유사한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도 찾기 어렵다. 운주사 원형다층석탑과 유사한 형태의 원형 다층석탑은 중국 산서성 羊頭山石窟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양두산석굴은 산서성 高平市에서 북쪽으로 약 23km 정도 떨어진 양두산에 있다. 양두산에는 석굴이 40여곳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주요 석굴은 9곳이 있다. 주요 석굴 중 가장 큰 석굴인 5호굴이 굴착된 암반 상부에는 두 개의 원형탑이 있다. 5호굴의 굴착 시기는 북위시대로 알려져 있으며 양두산석굴의 원형탑은 당나라때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32]

양두산석굴의 원형석탑은 1층 탑신에 감실이 있는 중공식 석탑이지만 그 외형만을 놓고 보았을 때 다른 어떤 석탑보다도 운주사 원형다층석탑과 유사하다. 팔탑산 10각 석탑과 더불어 양두산석굴의 원형 다층석탑은 운주사 원형다층석탑과 양식적인 면과 조형 형식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이러한 유사성은 운주사 석탑의 조성세력을 파악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조성시대와 작품간의 거리를 고려한다면 양두산 석굴 5호굴의 불상과 원형탑이 운주사 석조감실과 원형다층석탑의 조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가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양두산 석굴 일대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을 고려한다면 이불병좌상과 원형탑의 도상이 운주사에 전파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양두산 석굴은 山西省 高平市에 있다. 高平은 요나라 西京이 있었던 산서성 大同과 洛陽을 연결하는 교통로 상에 있는 도시이다. 高平에서는 오대십국시대인 954년 후주를 상대로 北漢과 요나라의 연합군이 전투를 벌인 역사적 사실이 있다. 이때 요나라에서는 北漢의 요청으로 1만의 기병을 파견하였다. 불교를 적극적으로 숭상하였던 요의 전통을 고려한다면 高平 일대에 주둔하였던 요군은 高平 북쪽에 위치한 양두산 석굴사원을 방문하거나 적어도 양두산 석굴사원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습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감실에 들어있는 이불병좌상과 원형다층석탑의 조합은 매우 희귀한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가 운주사에도 등장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고평전투와 같은 역사적 사건을 통한 문화의 교류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여겨진다.

---

32) 서남영, 「중국 산서성의 소형불교석굴에 관한 연구-양두산의 북조 석굴군을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 27, 불교미술사학회, 2019, 190면.

4) 운주사 석조불감

다섯 번째 질문은 운주사 석조불감과 같은 사례를 우리나라에서 찾을 수 있는가이다. 운주사 석감은 지붕의 평면 크기가 정면 4.2m, 측면 4.5m 정도이며 높이가 약 5m에 이르는 대형 석조불감이다. 석조불감의 기본적인 형태는 석감의 하부에 불상 대좌의 하대석과 중대석과 같은 방형 기단을 조성하였으며 그 위에 가옥형 석실이 조성되었다. 가옥형 석실은 팔작지붕 형식의 지붕이 있으며 창문이 없이 남쪽과 북쪽 중앙에 출입문이 있다. 석조불감의 내부에는 석불좌상이 높이 약3.2m의 광배를 사이에 두고 등을 맞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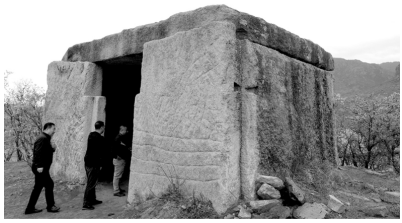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고인돌의 건립에서 알 수 있듯이 거석문화가 선사시대부터 발달하였다. 이후 고대나 중세시대 돌방무덤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돌방무덤은 지하에 묘광을 판 후 돌로 무덤방을 만드는 매장시설이다. 돌방무덤의 석실은 대형 판석을 이용해 조성한 경우도 있으나 다듬은 석재를 축대를 쌓듯이 벽을 만들어 지하에 돌방을 조성기도 하였다.

지상에 노출된 석실 중 운주사 석조불감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석실은 요나라 초대황제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 872-926)의 시신을 봉안하였던 석실에서 찾을 수 있다. 야율아보기의 무덤은 바린좌기(巴林左旗) 다푸라거산(大布拉格山)에 위치하며, 능역과 奉陵邑으로 구성되어 있다. 능역에는 매장하기 전 아보기의 시신을 모셨던 돌방과 공덕을 적은 기공비, 능묘가 있다.[33] 야율아보기의 시신을 안치했던 돌방은 운주사 석조불감과 비교하였을 때 기단과 지붕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창이 없으며 돌방 중앙에 출입시설이 배치되어 있는 점등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운주사 석조불감과 형태가 비슷한 건축물로는 요대 귀족무덤에서 출토되는 가옥형목곽이 있다. 興安盟博物館에 전시되어 있는 따이친따라(代钦塔拉) 3호묘 출토 가옥형목곽과 2011년도 규슈박물관 '契丹' 특별전에 출토된 내몽고 赤峯市 출토 요대 가옥형목곽은 운주사 석조불감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 특히 팔작지붕의 용마루가 지붕 길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으며 벽체에 창문

33) 김인희, 『움직이는 국가, 거란』, 동북아역사재단, 2020, 12면.

이 없고 출입시설이 건축물 정면 중앙에 시설된 점은 운주사 석조불감의 형태와 매우 닮았다. 특히 규슈박물관에 전시되었던 요대 가옥형목곽은 팔작지붕위의 용마루가 마치 별도의 통나무를 올려 놓은 듯한 모습인데 이러한 용마루의 모습은 운주사 석조불감에서도 확인되고 있다.[34]



〈그림 30〉 야율아보기 시신을 안치했던 석실
(『움직이는 국가, 거란』, 12면)



〈그림 31〉 야율아보기 시신을 안치했던 석실 내 시상대(『움직이는 국가, 거란』, 12면)



〈그림 32〉 赤峯市 출토 요대 가옥형목곽
(『草原の王朝 契丹』, 54면)



〈그림 33〉 운주사 석조불감(사진 필자)

5) 운주사 석불의 양식적 특징

운주사의 석불은 98개체가 확인되었으며 이중 형태가 완전한 석불은 62구이다.[35] 운주사 석불은 상호와 수인의 표현 방법, 옷주름 등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는 석불이 있다. 이는 조성 시기의 간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 같다. 운주사 석불은 석탑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시기에 동시에 전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중창기를

34) 九州國立博物館, 『草原の王朝 契丹』, 2011, 54-55면.
35) 全南大學校 博物館, 『雲住寺 資料集成』, 2009, 103-104면.

전후한 시기에 앞 시대의 석불 양식을 모방하여 꾸준히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주사 석불은 전체적으로 통일된 양식을 강하게 드러낸다. 운주사 석불과 석탑은 처음 만들어진 시기에 가장 많은 수의 석불과 석탑이 동시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인 운주사 석불의 양식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4〉 남원 개령암지 마애불상군 마애불입상(사진 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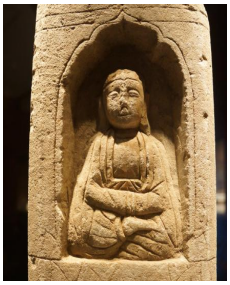
〈그림 35〉 장흥 고산사 석불입상(사진 필자)



〈그림 36〉 임실 오수리 석불입상(사진 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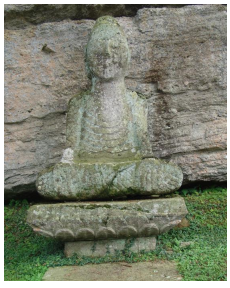
〈그림 37〉 북경 수도 박물관 . 요대 陶俑(사진 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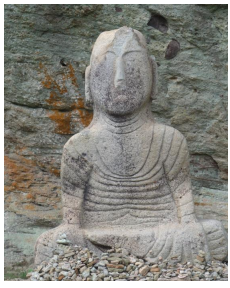
〈그림 38〉 북경 수도박물관 요대 석경당 석불좌상(사진 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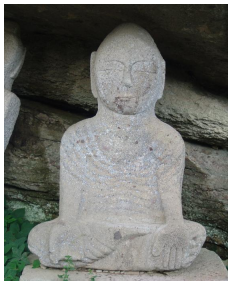
〈그림 39〉 북경 수도박물관 요대 석경당 석불좌상(사진 필자)



〈그림 40〉 운주사 석불좌상 (사진 필자)



〈그림 41〉 운주사 석불좌상 (사진 필자)



〈그림 42〉 운주사 석불좌상 (사진 필자)

첫째, 운주사 석불은 대부분이 판석형 석불이다. 운주사 석불은 석불입상뿐만 아니라 석불좌상 역시 대부분 판석형 석재를 다듬어 불상을 조성하였다. 판석형 석재를 다듬어 불상을 조성하는 방법은 주로 고려시대 등장하는 불상 제작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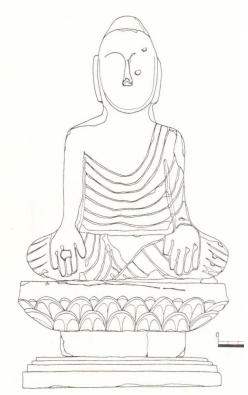
둘째, 운주사 석불의 수인은 손이 드러난 경우도 있으나 많은 수의 석불이 두 손을 마주잡고 있으며 마주 잡은 두 손은 옷자락으로 가려져 있다. 두 손이 옷자락으로 가려진 사례는 남원 개령암지 마애불상군에서도 확인된다. 개령암지 마애불상군에서는 "天寶十年(917)"으로 파악되는 명문이 있어 10세기 초반에 제작된 불상임을 알 수 있다.[36] 개령암지 마애불상군 중 향 우측, 높이 4.2m의 여래입상은 두 손을 마주 잡고 있는데 대의 자락에 손이 가려져 있다. 고려초기 조성된 전남 장흥 고산사 석조여래좌상 역시 옷자락에 가려진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으고 있으며 수인의 형태가 운주사 석불의 수인과 유사하다. 고려시대 불상인 임실 학정리 석불입상, 임실 오수리 석불입상의 수인 역시 옷자락으로 두 손을 덮고 있는 모습이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옷자락으로 손을 가린 불상은 중국에서는 북위 시대 이전부터 확인되며 이후 요대 불상이나 요대 인물상을 표현한 陶俑, 벽화 등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운주사의 경우 남원 개령암지 마애불상군, 대형 석불인 장흥 고산사 석불입상을 비롯하여 임실 학정리, 오수리 석불입상의 수인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셋째, 운주사 석불좌상 중 양손을 모두 아래로 내리고 있는 수인의 불상이 있다. 이른바 양손 촉지인 수인은 양손을 무릎에 대어 아래로 향하게 하는 결인이다. 중국 요대 대동시 화엄사 海會殿 18존 가운데 그 사례가 보인다.[37]

---

36) 개령암지 마애불상군의 명문에 대해서는 황호균의 다음 논문을 참조하였다. 황호균, 「지리산 정령치 마애불상군의 조성배경」, 『불교문화연구』 4, 남도불교문화연구회, 1994, 77-78면.

37) 이경화, 「화순 운주사 석불의 세계 유산적 가치」,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세계유산적 가치(OUV) 규명을 위한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문화유산보존연구원, 2024, 57면.



〈그림 43〉 운주사 석불좌상 대좌 도면 (『雲住寺 資料集成』, 460면)



〈그림 44〉 요녕성 박물관 소장 요대 불상 대좌(사진 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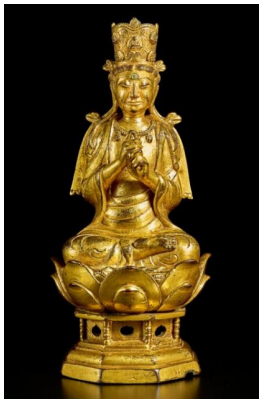
〈그림 45〉 요녕성 박물관 소장 요대 불상 대좌(사진 필자)

넷째, 석불좌상의 대좌는 상대석에 앙련이 조성되어 있으나 하대석에는 복련이 생략되어 있다. 일반적인 고려시대 대좌에 비하여 중대석이 매우 낮은 점이 특징이다. 통일신라시대나 고려시대 불상대좌는 평면 팔각대좌가 주류를 이루며 사각대좌의 경우도 상대석과 하대석 모두 연화문이 조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운주사 양손 촉지인 석불좌상의 대좌는 상대석에 앙련 연화문이 있으며 낮은 중대석과 연화문이 없는 계단식 하대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형태의 대좌는 山西省 大同 華嚴寺 薄伽教藏殿에서 확인된다. 화엄사 박가교장전은 遼 興宗 重熙七年(1038)에 건립되었다.[38] 박가교장전 내부에는 3구의 대형 소조상을 중심으로 다양한 불보살상 및 천왕상 등 도합 31구의 불교조각상이 있는데 불·보살 좌상의 대좌는 기본적으로 앙련이 조각된 상대와 낮은 중대, 계단식 하대로 이루어져 있다.

다섯째, 운주사 석불의 가장 큰 형식적 특징은 불상의 상호가 평면형 얼굴이라는 점이다. 평평한 평면 형태의 얼굴에 눈동자와 입을 생략한 채 눈썹과 코만 T자 형태로 단순하게 표시하였다. 불상의 상호를 평면으로 조각한 사례는 우리

38) 山西雲崗石窟文物保管所編, 『華嚴寺』, 文物出版社, 1980, 2면.

나라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복식 표현이 비슷한 개령암지 마애불상군의 경우도 불상의 얼굴은 광대와 입 부근이 입체적으로 조각되어 있다. 불상의 얼굴을 마치 갈아 놓은 듯이 평평하게 조성한 사례는 조선 전기에 조성된 제주도 복신미륵 이외에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복신미륵의 평평한 얼굴과 수인 등은 대정현성 돌하르방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대정현성 돌하르방 중 4기는 킵차크 칸국 출신 몽골인들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39] 운주사 석불의 평평한 상호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불상 상호에서는 찾기 어려운 얼굴 형태이다. 평평한 얼굴에 좁은 이마, T자형으로 눈썹과 코를 표현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북방 초원지대의 석인상 얼굴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운주사 석불은 석조미술 전공자들에 의해 몽골 또는 돌궐 석인상과의 유사성이 일찍 부터 제기되어 왔다.[40] 즉, 운주사 석불의 상호는 북방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는 상호이다.



〈그림 46〉 요대 금동보살좌상 (개인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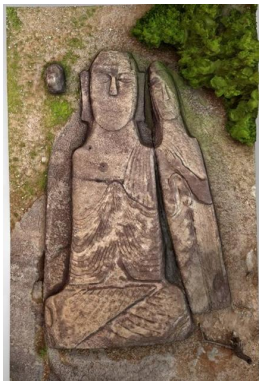
〈그림 47〉 요대 금동보살좌상 보관



〈그림 48〉 요대 금동보살좌상 보관화불

39) 제주도 복신미륵의 조성시기와 대정현성 돌하르방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성권, 「조선전기 석조불상 연구」, 『불교미술사학』 24, 불교미술사학회, 2017, 197-199면; 정성권,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과 전개」, 『耽羅文化』 50, 제주대 탐람문화연구원, 2015, 212-213면.

40) 소재구, 「운주사 탑상의 조성불사」, 『동원학술전국대회자료집』, 2001(주수완, 「운주사 석불상군의 밋훌사적 의의」, 『천불천탑의 불가사의와 세계유산으로의 탐색-화순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4, 253-254면 재인용); 엄기표, 「光州 十信寺址 석불과 석비의 조성 시기와 배경」, 『동국사학』 77, 동국대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3, 137-141면.



〈그림 49〉 운주사 와불 3D (사진 정성혁)



〈그림 50〉 운주사 석불좌상 (사진 필자)



〈그림 51〉 운주사 감실 석불좌상 다리(사진 필자)

여섯째, 운주사 석불좌상의 결가부좌한 다리는 발을 표현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 발을 생략하고 발이 있을 부분을 삼각형의 꼭지점으로 마무리 하였다. 결가부좌한 부처의 다리를 조각할 때 발을 생략하고 삼각형으로 앉은 다리의 형태를 간략하게 표현한 경우는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불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요대 금동불의 보관에 부착된 화불에서 이런 형태의 다리 모양이 확인되고 있어 운주사 석불의 조성세력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운주사 석불의 양식적 특징을 정리하면 판석형 불상 제작 방법, 두 손을 마주 잡고 옷자락으로 가린 수인, 양손 촉지인 수인, 하대 복련이 생략되고 중대석이 낮은 대좌, 평평한 얼굴에 주로 T자형 눕썹과 코를 강조한 얼굴 표현, 삼각형 형태의 결가부좌 표현 방식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운주사 석불의 양식적 특징 중 판석형 불상 제작 방법은 고려 불상의 제작 방법 중 하나이다. 두 손을 마주 잡은 수인은 우리나라 석불 중 호남 지역의 불상에서 주로 확인되며 중국, 특히 요대 불상이나 陶俑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수인이다. 이밖에 특징인 양손 촉지인, 낮은 중대석과 복련이 생략된 하대의 대좌, 결가부좌한 다리의 삼각형 모양 처리 방법은 요대 불상에서 확인되는 양

식적 특징이며, 평평한 얼굴의 모습은 유라시아 초원지대에 분포한 돌궐계 석인상에서 볼 수 있는 주요 특징이다.

운주사 석탑과 석불에 지문처럼 남겨져 있는 양식의 흔적을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양식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운주사 석불과 석탑을 조성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4. 운주사의 건립 세력

운주사 석탑과 석불을 누가 조성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의견이 있었다. 근래의 연구 성과에서는 운주사의 석탑과 석불은 호남지역 장인들이 지닌 예술적 소양의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41] 다른 주장으로는 운주사의 석탑과 석불이 12세기 초에서 13세기 전반기에 조성되었으며 건립 이유는 고려 명종대 정안(장흥) 임씨로 대표되는 나주권 세력이 대두되며 운주사에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고자 운주사에 불탑과 불상을 건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42] 이밖에 운주사의 석탑과 석불의 건립을 '요세, 천책' 등의 백련결사가 주도한 '법화도량 행법도량'으로 해석한 주장도 있다.[43] 근래에 발간된 단행본에서는 운주사의 천불천탑을 '관경16관변상도'가 현실에 현현한 것으로 해석하며 이를 주도한 이는 14세기 백련사 스님들로 보는 의견도 있다.[44]

기존의 연구성과는 우리나라 미술사의 전통적 '맥락'과 관계없이 등장하는 이질적 양식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운주사의 건립 세력을 밝히기 위해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운주사 석탑과 석불의 개별적인 양식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41) 朴慶植, 「和順 雲住寺 石塔 特殊性에 관한 考察」, 『東洋學』 57, 檀國大 東洋學硏究院, 2014, 135-154면.
42) 김창현, 「고려시대 능성 운주사에 대한 탐색」, 『사총』 72, 고려대 역사연구소, 2011, 27-74면.
43) 박형상, 「화순 운주사 현장의 등장배경과 법화경 28품」, 『종교문화학보』19-2,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 2022, 125-168면.
44) 홍석경, 『운주사 천불천탑의 미학』, 문화의 힘, 2024.

운주사 석탑과 석불은 비보사상이 사상적 배경이 되어 창건된 사찰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문헌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비보풍수와 관련 있는 인물인 신라의 도선과 고려초기의 혜명은 17세기 '재해석'된 인물이다. 운주사 석탑과 석불의 건립이 풍수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보사상이 운주사 건립의 주된 건립 사상이라 한다면 왜 앞 시대에는 한정된 공간에 다탑과 다불이 건립된 적이 없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다. 다탑과 다불의 건설은 불교조각사와 탑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불사 방식이 아니며 고려시대 운주사에서 갑자기 등장한 현상이다. 산간지역에 다탑을 세우는 조탑 방법은 운주사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이후 이러한 '전통'은 계승되지 않았다.

다불의 조성과 다탑 조탑 방법이 갑자기 운주사에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새로운 전통의 '창안'에서 찾기보다 '이식'에서 찾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운주사 석탑과 석불 곳곳에 흔적이 남아 있는 외래적 요소 때문이다. 한정된 공간에 다탑을 세우는 전통이 있었던 지역은 간다라, 인도 산치, 동남아시아, 중국 탑림, 遼寧省 義縣 八塔山 지역 등이다. 이중 지리적, 시대적 요건을 고려하고 탑림이 부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장소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다탑 건립의 전통은 요대 조성된 팔탑산 지역의 전통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요대 문화의 영향과 관련지을 수 있다.

운주사 석탑은 옥개석의 모습과 석탑 결구 방법 등을 보면 고려탑을 기본적인 양식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단을 생략한 채 지대석 위에 세장고준한 탑을 건립하는 것은 전통적인 조탑 방법이 아니다. 또한 탑신에 다양한 기하학적 문양이 자유롭게 조각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례 역시 운주사만의 독특한 장식 수법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 석탑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장식 수법은, 운주사 석탑을 건립한 세력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양식 범주에 얽매이지 않는 집단이었음을 방증한다. 또한 운주사 석탑과 석불의 조각 수준을 보았을 때 이들은 훈련된 전문적인 석장이 아니라는 점도 알 수 있다. 전문적 석장이 아닌 집단이 운주사 석탑에 기하학적 장식 문양을 자유롭게 조각하였다면 이러한 문양은 이를 조각한 집단

의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양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양하면서 단순한 기하 문양이 목조건축물인 요대 가옥형목곽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옥형 목곽은 운주사 석조불감의 조형 양식과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팔작지붕의 독특한 용마루, 창문이 없이 건물 중앙에 출입문이 조성된 점 등에서 건축물의 조형 감각의 유사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다듬은 판석만을 이용해 지상에 돌방을 만든 사례가 바린좌기(巴林左旗)의 야율아보기 능역에 있는 점은 어떠한 형태로든 운주사 석조불감과 요대 가옥형목곽 및 바린좌기의 석실이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운주사 석탑과 석불의 건립은 한반도에 전통적으로 거주하였던 토착세력이 아니라 이주세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 한반도에 들어와 석조미술을 조성한 이주세력으로는 발해유민과 몽골세력이 있다. 발해유민은 고려 광종대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의 협시보살상 보관에는 화려한 발해 보살상만의 보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45]



〈그림 52〉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
(사진 필자)



〈그림 53〉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3D)
(사진 정성혁)

45) 정성권,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의 조성배경」, 『문화재』 53-5, 국립문화재연구소, 2020, 232-239면.

몽골세력이 만든 석조미술로는 제주도 대정현성에 있는 돌하르방 4기를 들 수 있다. 대정현성 돌하르방 4기는 킵차크 출신 몽골인들이 몽골 킵차크 칸국에서 일상적으로 보았던 돌궐석인상의 영향을 받아 제주도에 파견된 후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6] 1317년(충숙왕 4) 건립된 것으로 파악된 광주 십신사지 석불 또한 돌궐 석인상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47] 아마도 십신사지 석불과 석비 역시 몽골세력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전기황후릉 출토 석양과 석호도 몽골 장인들이 조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1656년 반계 유형원이 편찬한 『東國與地志』에는 연천에 기황후의 묘가 있다는 기록이 있다.[48] 전기황후릉터는 연천군 상리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에서 2003년 石虎 2기와 石羊 3기가 수습되어 연천문화원으로 옮겨졌다. 전기황후릉 출토 석호와 석양은 몽골인들이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49]

발해유민이 조성한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의 조성시기는 10세기 후반이며 제주도 대정현성에 있는 몽골인들이 조성한 대정현성 4기의 돌하르방은 13세기 후반-14세기 전반경 조성된 것으로 연구되었다. 십신사지 석불과 탑비는 14세기 전반기인 1317년이다. 전기황후릉의 석양과 석물의 조성시기는 14세기 후반경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발해유민과 관련된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은 10세기대 작품이며 몽골인들에 의해 조성된 석조미술은 대부분 14세기대의 작품이다. 운주사의 석조미술은 석탑의 양식적 특징과 고고학적 성과를 고려하였을 때 주로 12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굴조사의 편년에 부합하며 석조미술에 요대 문화의 흔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46) 정성권,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 문제와 불교조각과의 관계」, 『몽골학』 70, 한국몽골학회, 2022, 94-111면.

47) 엄기표, 「光州 十信寺址 석불과 석비의 조성 시기와 배경」, 『동국사학』 77, 동국대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3, 137-141면.

48) 『東國與地志』 漣川縣 陵墓, "陵墓奇后墓 在縣東北十五里 俗傳元順帝奇皇后墓 石人石羊等石物今爲耕牧者所仆"

49) 정성권, 「傳 기황후릉 출토 석상의 미술사적 해석」, 『기황후릉의 종합적 연구 학술대회 자료집』, 연천군, 2018, 57-73면.

을 고려한다면 운주사 석불과 석탑 건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주 세력으로 거란 유민을 상정할 수 있다.

운주사를 건립한 집단은 고려의 문화적 전통에서 자유로운 집단이며 이들이 보여주는 양식적 파격성과 석불 및 석탑에 담겨있는 요대의 문화적 요소는 운주사 석조미술의 건립 세력으로 거란 유민을 상정할 수 있게 한다. 운주사 석불과 석탑이 거란 유민에 의해 조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요소는 석탑뿐만 아니라 석불에서도 확인된다. 중대석이 낮으며 하대석에 복련이 없는 운주사 석불좌상의 대좌는 전형적인 요대 불상 대좌와 유사하다. 또한 양손 촉지인 석불좌상의 수인 역시 요대 불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주사 석불입상이 거란 유민에 의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불상의 결가부좌한 다리 표현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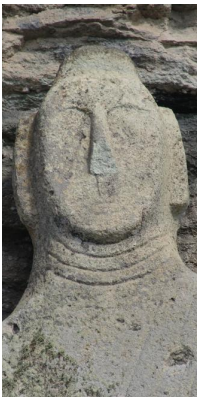
〈그림 54〉 돌궐계 석인상 스케치[50] (사진 Kyzlasov)



〈그림 55〉 운주사 석불입상(사진 필자)



〈그림 56〉 돌궐계 석인상 스케치 얼굴부분(사진 Kyzlasov)



〈그림 57〉 운수사 석불입상 얼굴부분(사진 필자)

운주사 석불의 다리는 일부 석불좌상을 제외하면 발바닥을 표현하지 않고 단순화시켜 결가부좌한 다리를 마치 길쭉한 삼각형 모양으로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다. 결가부좌한 다리를 삼각형 모양으로 표현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그런데 원통형 보관을 착용한 요대 금동 보살상의 보관 중앙에 표현된 화불의 다리 표현이 운주사 석불좌상의 다리 표현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삼각형 모양의 극도로 단순화된 결가부좌한 다리 모양이 요대 보살상의 원통형 보관과 운주사 석불의 다리에서 모두 확인된다. 결가부좌한 불상의 다리 표현을 소형 금동불에서뿐만 아니라 운주사 마애불과 와불과 같이 대형 불상에서도 극도로 단순화 시킨 삼각형 모양으로 표현했다는 점은 결국 운주사 석불과 석탑을 조성한 사람들이 거란 유민들이라는 점을 방증한다.

운주사 석불을 조성한 사람들이 거란 유민들이라는 점은 석불의 상호를 통해서도 추정할 수 있다. 운주사 석불 상호는 타원형의 평평한 얼굴에 눈과 입을 거의 생략한 채 눈썹과 코만 T자형으로 만들었으며 육계는 마치 상투처럼 솟아난 모양이 주류이다. 이러한 얼굴 표현은 돌궐계 석인상의 얼굴과 매우 닮아있어 주목된다. 돌궐계 석인상은 얼굴에 눈과 콧수염, 입 등이 조각되어 이지만 기본적인 얼굴의 형태는 평평하며 상투가 마치 운주사 석불의 육계처럼 솟아난 경우가 있고 눈썹과 코과 T자 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운주사 석불상과 같이 상호가 평평한 불상은 제주도 복신미륵이 있다. 제주도 복신미륵의 평평한 얼굴은 몽골인들이 만든 대정현성 돌하르방 4기의 평평한 얼굴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돌궐 석인상은 제주도에 목동으로 파견되었던 킵차크 칸국 출신의 몽골인들이 고향에서 일상적으로 자주 볼 수 있었던 석인상이다. 현재 몽골공화국 내에는 약 500기의 석인상이 분포해

50) 〈그림 54〉는 레오니드 로마노비치 키즐라소프, 「돌궐 카간군 시기의 투바(6-8세기)」, 『모스크바대 학보. 시리즈9: 역사학』 1, 1960, 58면에 실려 있다; Л. Р. КЫЗЛАСОВ, “ТУВА В ПЕРИОД ТЮРКСКОГО КАГАНАТА (VI— VIII вв.)”, *Вестник Москов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ерия IX: Исторические науки,* Vol. I, 1960, p.58.

있다.[51] 이 석인상들 중 약 400여기는 돌궐시대에 조성된 것이다.[52] 6-8세기 만들어진 돌궐시대 석인상은 몽골 초원지대 전역에 고루 분포해 있으며 흑해 연안까지도 수천 기가 분포해 있다.

운주사 석불상의 상호가 돌궐계 석인상의 상호와 같이 평평한 이유는 몽골인들에 의해 조성된 4기의 대정현성 돌하르방이 돌궐계 석인상과 형태적으로 비슷한 이유와 동일하다. 요의 영토는 현재의 몽골 영토를 모두 포함하며 서쪽으로 카자흐스탄의 영토 일부까지 포함하였다. 이 지역은 수천 개의 돌궐계 석인상이 분포해 있는 지역이다. 초원에 흩어져 있는 돌궐계 석인상은 유목민이었던 거란인들이 일상적으로 보았던 석인상이었으며 몽골의 성세 이후에는 몽골인들도 유목생활 중에 일상적으로 보았다. 생활 속에서 돌궐계 석인상을 보았던 거란인들은 1016년(현종 7) 2월 王美・延相의 來投를 시작으로 1117년(예종 12)까지 지속적으로 고려에 투화 하였다.[53] 요나라는 1125년 멸망하였으나 멸망 이후에도 거란의 잔당들은 고려를 침략하거나 거란유민들이 고려에 지속적으로 투화하였다. 고려에 들어온 거란유민들과 거란의 포로들은 각 주현에 나누어 보내 비어 있는 땅을 택하여 거처하도록 하였으며 토지를 지급하여 농사짓는 民이 되게 하였다. 거란 유민들이 거처하는 곳은 속칭 契丹場이라 하였다. 이는 아래의 〈사료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료 6. 조충은 호사연을 베풀었고 哈眞은 부녀자와 사내아이 700구 및 우리 민으로 적의 포로가 된 200구를 우리에게 돌려주었다. 나이 15세 전후인 여자로 조충과 김취려에게 각 9인씩과 준마 각 9필씩을 주고 그 나머지는 모두 자신을 따르도록 하였다. 조충은 거란 포로들을 각 주현에 나누어 보내 비어 있는 땅을 택하여 거처토록 하고는 토지를 헤아려 지급하여 농사짓는 민이 되게 하였는데 속칭 거란장(契丹場)이라 하였다.[54]

---

51) 데 바이에르, 『몽골석인상의 연구』, 혜안, 1994, 15면.
52) 윤형원, G.에렉젠, 「몽골 석인상의 편년과 상징성에 대한 일고찰」, 『중앙아시아연구』 11, 중앙아시아학회, 2006, 201면.
53) 남인국, 「고려전기의 投化人가 그 同化政策」, 『역사교육논문집』 8, 역사교육학회, 1986, 88-91면.
54) 『고려사』 권16 제신 김취려.

거란유민들은 특정한 지역에 모여 살았으며 고려문화에도 깊이 동화하였다. 거란유민이 고려문화에 동화한 사례는『고려사절요』위초의 모습에서 파악할 수 있다.

> 사료 7. 12월. 왕이 散員同正 위초가 넓적다리 살을 베어 그 아버지의 나쁜 병을 치료했다는 말을 듣고 재상에게 명하여 포상할 것을 의논하게 하였다. 한문준·문극겸 등이 아뢰기를, (중략) 지금 위초는 거란의 유종으로서 문자도 깨치지 못하였으면서 능히 그 몸을 아끼지 않고 살을 베어 아버지에게 먹이고, 돌아가시자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여 그 효도를 다하였습니다. 마땅히 옛 전례와 같이 정문을 세우고 서책에 써서 후세에 무궁하도록 보여야 할 것입니다.[55]

고려에 내투한 거란 유민들은 유목민의 전통에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의 시묘살이를 할 정도로 고려문화에 자연스럽게 동화하였다. 거란 유민들 생활 모습은 〈사료 8〉에서도 엿볼 수 있다.

> 사료 8. 왕(睿宗, 재위 1105-1122)이 南京에 이르렀다. 거란에서 투항하여 귀화한 사람(投化人)들로서 남경에서 가까운 곳(圻內)에 흩어져 살던 자들이 거란의 노래와 춤, 여러 가지 놀이(雜戲)를 바치며 御駕를 맞이하였다. 왕이 임어를 잠시 멈추고 머무르며 이를 보았다.[56]

거란유민들이 특정 지역에 모여 사는 모습을 기록한 〈사료 8〉의 내용을 보면 운주사 일대에도 거란유민들이 거란장을 이루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2세기경 고려에 투화하거나 포로로 잡혀온 거란유민들은 운주사 일대에 거란장을 조성하여 모여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운주사 입구에서 남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은 중장터로 알려져 있다. 중장터는 僧市의 개념으로 소개되기도 하였으며 중장터의 명칭이 19세기 말에 시작되었다는 의견도 있다.[57] 하지만 중장이라는 이름의 기원은 고려시대까지 소

55)『고려사절요』1185년 12월 미상.
56)『고려사절요』1117년 08월 미상.
57) 全南大學校 博物館,『雲住寺 資料集成』, 2009, 71-72면.

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운주사 중장터 마을은 원래 거란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거란장에 거주하였던 거란유민들은 운주사 석불과 석탑을 조성한 후 그들의 상당수는 운주사를 자신들의 원찰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들 중에는 많은 수가 운주사의 승려나 거사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운주사의 대규모 불사에 참여한 능성현 거란장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운주사의 일원이 되었을 것이다. 거란 유민들이 거주하는 거란장은 승려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승려장, 즉 중장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운주사 석탑과 석불을 조성하고 운주사 근처에 거주하였던 거란 유민들은 시간이 흐르며 고려사회에 동화되어 갔으며 이름도 고려식으로 바꿨을 것이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이들은 이미 고유의 성씨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세종실록지리지』능성현조의 토성 중에 김씨가 "고려에서 백정으로 判定하였는데 온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58] 능성현의 토성 중 강씨는 晉州 강씨임을 표시하고 있는데 김씨의 경우 "온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적혀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들의 조상이 거란 유민들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운주사를 건립한 세력은 거란 유민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운주사 석불과 석탑에서 확인할 수 있는 파격적인 양식은 결국 '외래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있었던 거란 유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5. 맺음말

운주사의 창건은 천불천탑사상, 풍수지리사상의 비보사탑설과 연계된 것으로 이해되며 도선국사나 관촉사 은진미륵을 조성한 혜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본문에서는 도선과 혜명이 등장한 문헌기록을 분석하였다.

58)『세종실록』권151, 지리지 전라도 장흥 도호부 능성현.

그 결과 도선과 혜명은 17세기경 '재해석'된 존재이며 이들은 운주사의 창건과 관련이 없음을 논하였다.

운주사를 누가 조성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운주사 석불과 석탑의 양식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정된 공간에 다탑을 건립하는 사례는 우리나라의 전통 건탑 방법이 아님을 알 수 있었으며 운주사 다탑 건립의 사례는 요대 조성된 遼寧省 八塔山 팔탑자탑의 다탑 건립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팔탑산 팔탑자탑에는 사례가 매우 드문 10각 탑이 존재하는데 이는 운주사 원형다층석탑 기단부가 10각이라는 점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운주사 석탑과 요대 문화가 연관성이 있음은 운주사 석탑의 기하무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운주사 석탑 탑신부의 기하무늬는 요대 가옥형목곽의 장식 문양과 흡사하며 요대 가옥형목곽의 형태는 운주사 석조불감과 매우 유사한 점을 논의하였다. 운주사 원형다층석탑은 중국 양두산 석굴의 원형석탑과 매우 흡사한데 양두산 석굴 인근에 1만명의 요나라 군대가 주둔하였던 역사적 상황(高平戰鬪)을 고려한다면 양두산 석굴의 이불병좌상과 원형탑이 결합된 5호굴의 도상이 운주사 석조불감과 원형다층석탑과 어떠한 형식으로든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운주사 석불의 양식 분석에서는 석불의 중요한 특징인 평평한 얼굴이 돌궐계 석인상의 영향과 관계있음을 논하였다. 돌궐계 석인상과의 관계를 논하기 위하여 몽골지배기 돌궐계 석인상의 영향으로 조성된 제주도 대정현성 돌하르방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밖에 양손 촉지인 자세, 하대석에 복련이 생략되며 중대석이 낮은 대좌 등은 요대 불상의 형식적 요소임을 논하였다. 운주사 와불을 비롯한 운주사 여래좌상은 대부분 결가부좌한 발 모양이 삼각형 모양으로 표현되었다. 다리를 삼각형 모양을 표현한 사례는 요대 금동보살좌상이 착용한 원통형 보관의 화불 다리 모양과 매우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운주사는 거란유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석불과 석탑을 조성한 것이 실질적인 창건이라 할 수 있다. 거란은 유목민이었으나 최초의 정복왕조로서 중국 내륙을 지배하였으며 풍성한 불교문화를 영위하였던 제국이다. 운주사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던 거란(契丹, Khitan)이 역사 속에 사라진 시점(1125년)을

전후하여 창건된 것으로 보인다. 운주사는 고려와 거란의 불교문화가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건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목민이었던 거란인들이 보았던 돌궐계 석인상 문화 역시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본다면 운주사는 고려문화, 요 제국의 문화, 돌궐의 문화가 복합적, 중층적으로 종합되어 있는 국제적이며 독보적인 역사 유적이라 할 수 있다. 운주사는 유목문화와 정착문화가 결합하여 탄생한 국제적 문화의 융합의 현장이다.

▮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大東地志』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김병인, 「화순 운주사의 "사명(寺名)" 변화와 그 함의」, 『호남학』 57, 2015.
김수연, 「고려-거란 밀교 교유의 양상과 특징-『梵書摠持集』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62, 2021.
김일권, 「화순 운주사 북두칠성 원반석과 산정와불의 고려천문학」, 『정신문화연구』 37-2, 2014.
김창현, 「고려시대 능성 운주사에 대한 탐색」, 『史叢』 72, 2011.
박지훈, 「백제계 석탑의 특징과 건립배경」, 『강원사학』 27, 2015.
성춘경, 「和順 雲住寺石佛-石造佛龕을 中心으로-」, 『전남의 불상』, 학연문화사, 2006.
오호석 외, 『中國遼塔』, 학연문화사, 2019.
이진호, 「통일신라시대 전탑 천불상 연구」, 『先史와 古代』 44, 2015.
이태호・천득염・황호균, 『운주사』, 대원사, 2007.
장남원・강병희・권순형・김순자・김영미・안귀숙・정은우, 『고려와 북방문화』, 양사재, 2011.
전남대 박물관·화순군, 『雲住寺綜合學術調査』, 1991.
_____, 『雲住寺 資料集成』, 2009.
정선종, 「百濟系石塔에 관한 일고찰-건립 배경과 시기를 중심으로-」, 『사학지』 20, 1986.
정성권, 『태봉과 고려 석조미술로 보는 역사』, 학연문화사, 2015.
_____,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의 조성배경」, 『문화재』 53-5, 국립문화재연구소, 2020.
_____, 『고려와 조선 석조문화재로 보는 역사』, 학연문화사, 2021.
_____, 「제주도 돌하르방의 기원 문제와 불교조각과의 관계」, 『몽골학』 70, 2022,
_____, 『신라와 고려 불교조각으로 보는 역사』, 학연문화사, 2026.
정은우, 「고려 중기 불교조각에 보이는 북방적 요소」, 『미술사학연구』 265, 2010.
주경미, 「遼代 八大靈塔 圖像의 硏究」, 『중앙아시아연구』 14, 2009.
천득염, 『百濟系石塔硏究』, 전남대 출판부, 2003.
_____, 「운주사석탑의 양식적 특성과 세계유산으로서의 의미」, 『호남문화연구』 54, 2013.
최성은, 「발해 상경성의 불상-동아시아 불교조각과의 비교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7, 2010.
한기문, 「高麗時代 裨補寺社의 成立과 運用」, 『한국중세사연구』 21, 2006.
황호균, 「운주사의 사찰 창건과 천불천탑의 조성 배경론」, 『불교문화연구』 11, 2009.
九州國立博物館, 『草原の王朝 契丹』, 2011.
遼寧省文物考古硏究所, 『朝陽北塔考古發掘與維修工程報告』, 文物出版社, 2007.
후지와라 타카토, 『거란 불교사 연구』, 씨아이알, 2020.
Vkadimir D. Kubarev, 『알타이의 제사유적』, 학연문화사, 1999.
Л. Р. КЫЗЛАСОВ, “ТУВА В ПЕРИОД ТЮРКСКОГО КАГАНАТА (VI— VIII в в.)”, *Вестник Москов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ерия IX: Исторические науки, Vol. I*, 1960.

【Abstract】

The Sacred Space of Thousand Buddhas and Thousand Pagodas: The Founders of Unjusa Temple in Hwasun through Archaeology and Art History

Jeong, Seong-kwon*

This study comprehensively analyzes documentary records and the stylistic features of stone art to clarify the actual founders and cultural background of Unju Temple in Hwasun. First, through a critical analysis of historical texts,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the traditional foun dation theories involving Master Doseon and Hyemyeong were merely reinterpreted during the seventeenth century and bear no historical connection to the actual establishment of the temple. Furthermore, an examination of the stylistic elements of the stone monuments reveals that the practice of constructing multiple pagodas within a confined space, the decagonal base of the circular multi-story pagoda, and the geometric patterns on the pagoda bodies closely resemble those of the Batada (Eight Pagoda Mountain) pagodas and house-shaped wooden coffins of the Liao Dynasty. This study also demonstrates that the stone Buddha shrine and the circular multi-story pagoda are closely related to the iconography of Cave 5 at Yangtou Mountain in China. Additionally, the flat-faced stylistic feature of the stone Buddhas aligns with the examples of Dolhareubang statues on Jeju Island, which were influenced by Turkic stone statues, while the low pedestals and the triangular representation of the crossed legs seen in the reclining Buddha and other seated Buddhas are identified as core elements of Liao Dynasty Buddhist sculpture. In conclusion, Unju Temple was a Buddhist site actively constructed by Khitan refugees who migrated to Goryeo around the fall of the Liao Empire in 1125. This underscores Unju Temple as an international and unparalleled historical heritage site that multi-layeredly integrates the culture of Goryeo, the Liao Empire, and Turkic nomadic culture with settled culture.

Keywords: Hwasun Unju Temple, Khitan, Liao Dynasty, Thousand Buddhas and Thousand Pagodas, Goryeo Dynasty, Stone Art, Turkic Stone Statues

접수일: 2026.06.30. || 심사일: 2026.08.07. || 게재확정일: 2026.08.14.

* Visiting Professor at the Academy of Asian Studies, Dankook Univ.